



青春

요즘 청년들을 우리는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고 한다. 이들이 포기하는 N 중에는 연애와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 연애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여유가 없는 요새 청년들은 연애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2017 청춘대담

청춘은 사랑하고 싶다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배재대학교는 지난 5월 19일, 배재대 북카페 Goat Bean에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천주희 작가와 함께 대전지역 청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배재대학교 조경덕 하워드대학장의 축하의 말과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송진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서 천주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김덕유(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서한나(잡지 『보슈 BOSHU』 편집장), 장경춘(크로스핏 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참가자), 정혜련(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최향준(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대담자로 참석해 청년들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 현실, 문제점,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사회
송진숙 교수



최향준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김덕유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축사
조경덕 학장



서한나
잡지 『보슈 BOSHU』 편집장



장경춘
크로스핏 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참가자



정혜련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최항준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실제 청년들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주희 작가님이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학생들은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었나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대학생들이 등록금만 있다고 대학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재도 사야하고 연애도 해야 하죠. 저도 대학원 석사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등록금을 대출받았어요.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경제적 어려움만 얘기하고 가기에 아쉬울 것 같아서 사랑이 뭔지, 정말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건지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청년들에게 “너네 고민이 뭐야?” 하면 실은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취업이 어려워요.” 등 그런 답이 나오길 바라는 느낌이 들죠. 이 자리에서는 정해진 답 말고 여기 오신 분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김덕유 |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친구들 만나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작가님 책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읽



이 자리에서는
정해진 답 말고
여기 오신 분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결혼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으면서 불편하기도 했어요. 취업, 돈, 연애 등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답은 없는 이야기죠.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결혼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정혜련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저도 여기 앉아있는 제 친구들과하고 고민이 같아요. 등록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부모님은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라고 하지만,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유지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고민스러워요.

장경춘 | 크로스핏 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참가자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크죠.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운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신체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다녀야 해요.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르죠. 좋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죠.

서한나 | 잡지『보슈 BOSHU』편집장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에게 무엇이 힘들냐고 물어봤어요. 연애에 대한 생각은 두 부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상황 상 못하는 사람.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은 데이트비용, 공간, 시간 등 많은 것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최항준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가 가르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1천만원~2천만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갚아 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도 학생들에게 어떤 답을 주기는 어려웠어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고민을 들어보니,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시간 빈곤'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일상에서는 나에게만 집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고, 노력은 하는데 어렵고, '노-오-력'을 해도 답을 찾기 어렵고요. 그럴 땐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항준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연애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 하나요?

서한나 | 잡지『보슈 BOSHU』편집장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이 어렵다고 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상황과 같이. 작년 10월, 대전에서 시민 세 분을 초청해서 매달 조건 없이 5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실험을 진행했어요. 제 옆에 계신 장경춘 님이 첫 번째 수령자이시죠. 경제적 여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도 생각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장경춘 | 크로스핏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참가자
맞아요. 연애를 하기 위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제 생활만 해도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빼면 연인과 일상적인 소통을 할 여유가 없거든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보장되어야 연애에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련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졸업반인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래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다녀오면서 학년 차이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죠. 이런 시간적 여유에서 생기는 차이가 연애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데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서울이나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안전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헤어지자마자 돌변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부분도 연애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싶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이 어렵다고 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보장되어야 연애에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요. 데이트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서한나 | 잡지『보슈 BOSHU』편집장

보슈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이고, 공교롭게 모두 여성이에요. 마침 6월호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해 다루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팀원들끼리 익명채팅방에서 피해경험을 얘기했죠. 생각보다 많은 피해경험을 말하더라고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저한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예요.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안전한가요. 특히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바라는 사회는 늘 긴장하면서 사는 곳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과 신뢰와 안전망을 쌓을 수 있는 곳이죠. 학교나 지역에서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젠더 감수성이 지역 사회에 녹아들면 여성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서한나 | 잡지『보슈 BOSHU』편집장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요. 여성들은 기업의 인사, 기획, 영업 파트 등 특정 분야에서는 여성 구직자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취업 문턱에서부터 성별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업했는데 임금이 달라요. 이것은 사회 말고도 가정 내에서도 벌어져요. 오빠가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고, 여동생이 대학을 갔죠. 부모님이 여동생의 학비를 내주다 오빠가 제대한 후에는 여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하죠. 남자는 결혼할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젠더 차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임금, 결혼, 경제력에 대한 조건이 여성, 남성이라는 이유로 달라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 정도 모아야 결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덕유 |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적어도 5천만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월세라도 괜찮죠. 보통 주택 보증금과, 중고차 구입비, 결혼식 비용 정도를 따져서 5천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혜련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친오빠가 결혼한 것을 지켜봤어요. 주택 보증금, 결혼식 비용 등 1억원 이상 들더라고요. 저희 과 학생들이 취업해서 받는 평균 월급이 18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10년을 모아 40살 다 되서 결혼하고, 이래서 노산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웃음).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연애의 도달점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 정책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죠. 일례로 저희 동네에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조건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때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은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공공주택이라고 해도 대출금이 필요하니 계속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게 싫었어요.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거지원도 중요하지만 동성, 대학생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역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항준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에서 여성학이라는 강좌가 개설함으로써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고민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덕유 |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제도적인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

막연하게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청년들과 이야기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성공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력, 직업에 대한 편견이 크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안가면 루저 취급을 하는 것 처럼요. 이런 사회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혜련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원하는 전공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대학 진학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등록금, 생활비 등 경제적 비용이 현실적이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면 좋겠어요. 또한 막연하게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청년들과 이야기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장경훈 | 크로스핏 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참가자
결혼 비용, 데이트 폭력 등 어려움이 많은데요. 데이트 폭력과 같이 장기적인 인식변화나 교육 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한나 | 잡지『보슈 BOSHU』 편집장
자신에게 몰입할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에 와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가 스펙 쌓는 것에 몰입하게 만들고 있죠. 이게 진짜 몰입의 즐거움이라기 보다는, 불안함에서 멀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요.

천주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얼마 전에 만난 대학생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 전혀 엉뚱한 게 아닌 '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은 10대 때 그런 고민을 하면 대학 가서 하라고 하죠. 막상 대학 가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취업 후에 하라고 하죠. '나'에 대한 고민은 계속 유예되는 거죠. 더 나은 삶에 답은 없어요. 쓸모없는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시간은 결국 나에 대한 고민에서 타인에 대한 고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성공도 마찬가지로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삶이 꼭 나은 삶은 아닌 거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성공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항준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청춘을 꿈꾸면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